

오늘의 避妊實態에 關하여

대구동산 기독교병원, 공중보건과

윤 능 기

=Abstract=

About Family Planning Status in Today

Nung Ki, Yoon, M.D.

Dept Public Health, Daegu Dongsan Presbyterian Hospital

Natural increase rate in population is reached to 1.7% in 1975 from 2.5% in 1966 because of the effect of Governmental Family Planning Program.

The average number of present children and ideal children is just the same, 2.4 people, in this investigation.

So, I assume that the number of present and ideal children is approaching each other. The rate of unmarried female workers who don't know even one thing about the knowledge of contraception was 23.9%, and especially that of rural women was 31.5% and 41.3% of them has never experienced contraception.

"Boy-preference" presented 60.1% of unmarried female workers and 79.1% of married women.

"Connection of a family line" related to "Transfer to next generation of a family line" presented 38.0% and "Trustworthiness" related to "Leadership of a family" presented 26.0% (total 64.0%).

As this point, we can find that this rate reveals the traditional sense of patriarchal system in society and family.

The rate of women of experienced artificial abortion has been 52.1% and that of women using it as birth control caused by "Many children" and "Short brith-interval" 46.6% of women of experienced pregnancy. So, we can see that artificial abortion is a main cause of Maternal Health destruction.

I. 緒 論

經濟開發의 基盤인 人口調節을 國家施策으로 政府家族計劃事業을 1962년부터 保健社會部가 主管으로 始作하여 全國 保健所網을 통하여 實施해온 以來, 人口自然增加率¹⁾이 1966年度 2.5%에서 1971年度 2.0%, 1975年度 1.7%의 水準으로 減少의 效果를 거두었으나

오늘의 可妊女性들의 避妊에 對한 意識과 態도가 어떤 지를 알고 問題點을 찾아 繼續되는 事業推進에 도움이 되고져 이 研究를 하였다.

II. 調查對象 및 方法

調查對象 :

19세부터 49세까지의 可妊年齡期에 있는 女性으로,

大別해서 未·既婚으로 나누고, 未婚女性(未婚으로 畧함)으로 市内 D銀行 女職員 163名, 有配遇 既婚女性(婦人)으로 畧함에 都市對象으로 市内 대봉동所在 C맨손 아파트 A·B棟의 住民, 97名(面接率 53%), 農村對象에 칠곡군 칠곡면 구암 1·2동의 住民 109名(面接率 42.2%), 病院職員 42名, 환자보호자 54名の 4個群으로 하였다.

方法:

面接調査로 設問書에 의해 행하여졌다. ① 銀行 女職員은 1980년 4월 21일부터 同年 5월 31일까지 勤勞者 一齊身體檢査時를 利用하여 當公衆保健科에서 實施하였고, C맨손 아파트 住民은 동산간호전문 대학 제 3학년學生 3名이 1960년 6월 15일 아파트內 世帶別

象은 198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當科에서 個別面接으로 實施하였다.

教育程度:

은행群은 거의 高卒 96.3%, 아파트群은 大卒63.9%, 高卒 33.0%, 농촌群은 國卒 56.9%, 中卒27.5%, 高卒 11.0%, 병원직원은 大部分 大卒 73.8%, 환자보호자는 高卒 48.1%, 中高 25.9%, 國卒 20.4%의 順位를 보였다(表 1).

3. 避妊知識의 知得經路

農水産部 全國保有 現況調査²⁾에 Radio 家口當 1臺, T.V. 1.6家口當 1臺, 新聞 5.6家口當 1部꼴로 나타나 Radio, T.V. 新聞이 主된 메스콤役割을 하는것을 알 수가 있고, 合計에서 메스콤 45.8%로 全知得經路의

表 1. 조사대상자의 教育程度

(): %

학교	대상	은행	아파트	농촌	병원직원	환자보호자	계	합계
	한글해독			5			5	5
	국민학교			62 (56.9)	3	11 (20.4)	76	76
	중학교		3	30 (27.5)	1	14 (25.9)	48	48
	고등학교	157 (96.3)	32 (33.0)	12 (11.0)	7	26 (48.1)	77	234
	대학교	6	62 (63.9)		31 (73.8)	3	96	102
	합계	163 (100)	97 (100)	109 (100)	42 (100)	54 (100)	302	465
년령		19-25(미혼)			19-49(기혼)			

表 2. 피임 지식의 취득 경로

(): %

경로	대상	결혼		기혼					합계	비고
		미혼	혼	아파트	농촌	병원직원	환자보호자	계		
메스콤	신문	43	114	20	9	5	13	47	90	292 (45.8)
	T. V.	55(48.2)		14	55	7	15	91	146(47.6)	
	라디오	16(14.0)		8	31	4	10	53	56(27.7)	
잡지			25	20	14	10	11	55	80(12.5)	월간지, 대중잡지, 기타
보건소직원			9	6	66(33.3)	8	17	97	106(16.6)	
학교			31	29(23.8)	1	8	1	39	70	
친구			12	18	20	7	9	54	66	
기타				7	2	10	5	24	24	부모, 강연, 부녀회, 직장 등
합계			191	122(100)	198(100)	59	81	460	638(100)	

訪問으로, 칠곡면 구암洞의 住民은 198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當科의 農村保健活動 team의 간호원 2名과 當面에 주해하는 母子保健管理要員 1名이 家庭訪問으로, 병원직원 및 환자보호자(當科에서 實施하고 있는 結核管理 事業으로 訪問하는 환자보호자임)對

거의 半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張鄺³⁾의 34.4% 보다는 높고, 雜誌 6.5% 보다는도 12.5%로 높으며, 保健所職員(家族計劃要員)의 40.6% 보다는 16.6%로 顯著히 낮았다. 그리고 메스콤은 荻野⁴⁾의 大都市 37.2%, 小都市 33.0%(이中에는 雜誌가 包含되고, 제일 많았

다)보다도 높았다. (表 2)

未婚·婦人群에서는 손메스콤中, T·V가 48.2%, 47.6%로 거의 同率로 제일 높았고, Radio는 未婚 14.0%, 婦人 27.7%로 約 2배나 婦人이 높았으며, 이것은 婦人들이 家庭에 있는 時間이 많아 聽取時間도 따라 많은 것으로 생각이되고, 反對로 雜誌는 未婚 13.1%, 婦人 12.5%로 未婚이 若干 높은 것은 比較的 未婚에서 讀書率이 높은것으로 안다. 文化用品의 普及率이 增加함에 따라, 메스콤을 통해서 知得하는것이 斷然히 높다.

메스콤 다음으로 많은것이, 아파-트群에서 학교23.8%에 비해 農村群에서 保健所職員33.0%로 特色을 보

比해 日本毎日新聞의 調査(1976)⁹⁾의 子女教育 37.1%, 母體健康 30.1%, 生活困難 16.4%로 1位는 같으나 2-3位는 바껴져 있다. 그리고 自己自身の 時間을 갖기위해서”는 本表에서 불과 1.6%로 매우 低調인데 對해 日本調査 8.5%는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女性觀이 自己를 위해서보다 家庭을 위하는 傳統的인 意識이 아직 남아있음이라 본다(表 3).

未婚·婦人에서 함께, 前述의 1·2·3位의 順位가 같으나 子女教育에서 未婚이 婦人보다 若干 強率을 보인다.

農村群에서 經濟的困難3.8%로 他群에 비해 1位로 差異가 있고, 病院職員은 病院이란 特殊職場에 勤務를

表 3. 피임을 실행하는 이유

이유	대상	결혼		미혼		기		혼		() : %			
		은	행	아파-트	농	촌	병원직원	환자보호자	계	합	계		
수를 제한하여 자녀교육을 잘 한다.		(42.1)	82	(37.2)	61	(18.9)	38	(53.1)	26	(55.3)	63	188 (38.8)	270
부모에게 걱정시키기 때문					14	(8.0)	16		3		10	43	43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12.8)	25	(14.6)	24	(8.0)	16	(20.3)	13	(11.4)	13	66 (13.5)	91
경제적인 곤란을 피하기 위해		(33.8)	66	(30.5)	50	(33.8)	67	(9.4)	6	(19.3)	22	145 (32.7)	211
남의 어려운 경우를 보았기때문			9		10		6		1		3	20	29
자녀들의 질병이 두려워서					1		3				4	4	4
협소한 주택의 문제			5		1		5				3	9	14
자기 자신의 생활을 갖기 위해			8		3						3	(1.6)	11
합	계	(100)	195	(100)	164	(100)	151	(100)	49	(100)	114	478 (100)	673

表 4. 피임 실행 상태

대	상	실행 상태			조사대상자수			
		현재 실행하고 있다	이전 실행한 일이 있다	전혀 실행한 일이 없다				
아	파-트	(71.1)	69	16	12 (100)	97		
농	촌	(45.9)	50	14	(41.3)	45 (100)	109	
병	원 직원	(73.8)	31	6		5 (100)	42	
환	자 보호자	(59.3)	32	6		16 (100)	54	
합	계	(60.3)	182	(13.9)	42	(25.8)	78 (100)	302

여주고있다.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學校에 의한것이 많고, 낮을수록 保健所職員을 통한것이 많은것은, 李⁹⁾의 見解와 같다.

避妊을 實行하는 理由 :

設問書中 서로 같은 內容의 理由로 생각되는것이 있을것 같아 回答者가 意識 하는것을 한 단안을 制限하지 않고 적어받았다. 合計에서 “數를 制限하여 잘 子女를 教育한다” “38.8%, “經濟的인 困難을 避하기 위해서” 32.7%, “어머니의 健康을 위해서” 13.5%의 順位에

합인지 어머니의 健康을 위해서가 20.3%로 두째이다.

全體를 통해 數를 制限하여 教育을 잘 시킨다는 子女에 對한 意識이 매우 強한것을 쉽게 알수가 있다.

避妊實行狀態 :

婦人 全調査對象者 302名에 對해 現在 避妊을 實行하고있는 사람은 60.3%로 崔⁷⁾의 論考中 美國(1969) 69%, 日本(1975) 61%, 韓國(1971) 25%, (1979) 54%과 比較하여 美國當時보다 낮고, 日本當時와는 비슷하며 鄭, 崔⁸⁾의 47.1%는 農村群의 45.9%과 비슷하고 全體의으로는 實行率이 增加의 傾向을 보인다. (. 4)

表 5. 피임방법 지득수 및 그 지득 내용

() : %

구분 내별 대상	지 득 수									합 계	지 득 내 용									합 계			
	모른다										콘 돔	루 프	난 관 절 찰	정 관 절 제	질 외 사 정	월 경 주 기	월 경 조 절	경 구 피 임 약	탐 폰		모 르 다		
	1	2	3	4	5	6	7	8	9														
은 행	38	23	25	19	4	10	1	2	2	(23.9)	(100)	63	67	24	49	7	78	20	27	17	39	391	
아파	8	5	8	9	11	13	9	13	20	1	97	82	75	75	77	48	70	45	64	26	1	563	
농 촌	6	4	7	10	20	22	19	16	3	2	109	84	(31.5)	103	90	82	32	62	44	95	6	2	600
병 원	2	2		1	1	2	10	12	12		42	38	37	42	40	35	36	24	38	14		304	
환 자	7	3	6	7	6	4	12	5	4		54	42	45	31	34	18	33	14	37	3		257	
보 호 자	23	14	21	27	32	41	12	46	39	3	302	246	260	238	233	133	201	127	234	49	3	1,724	
계	61	37	46	46	42	51	51	48	41	42	465	(14.9)	(15.8)	(12.6)	(13.6)	(6.8)	(13.5)	(7.1)	(12.6)	(3.2)	66	42	2,115
합 계	423 (91.0)									(100)	(100)	2,073 (100)											

表 6. 현재 자녀수 및 성별과 이상자녀수 및 성별

S : ♂
() : 자녀실수 D : ♀

현재성별 현재수	이상성별	이상수									계	합 계
		1 2 3 4 5										
		S ₁	D ₁	S ₁ D ₁	S ₂	S ₂ D ₁	S ₁ D ₂	S ₂ D ₂	S ₃ D ₂			
0					5		3	1			9	9(9)
1	S ₁	4			18		3		1	1	27	
	D ₁	1	5		19	1	5	2			33	60(60)
2	S ₂				24	4	6		2		36	
	D ₂				11	1	1	3		1	17	
	S ₁ D ₁	2	1		36	1	12		3	1	56	109(218)
3	S ₃				3	2	2				7	
	D ₃				4		1		1		6	
	S ₁ D ₂	1			13		9	3	2		28	
	S ₂ D ₁	1			13		18		1		33	74(222)
4	S ₄				1		1				2	
	D ₄				2		1				3	
	S ₁ D ₃	1	1		4						6	
	S ₁ D ₂				8	1	8				17	
	S ₃ D ₁				2		4				6	34(136)
5	S ₅											
	D ₅											
	S ₁ D ₄				2		1				3	
	S ₂ D ₃						2		1		3	
	S ₃ D ₂						1		1		2	
	S ₄ D ₁						1				1	9(45)

6	S ₆									
	D ₆									
	S ₁ D ₅		1	1					2	
	S ₂ D ₄		1	1					2	
	S ₃ D ₃		1	2					3	
	S ₄ D ₂									
	S ₅ D ₁									7(42)
계		9	6	161	13	88	9	13	3	302
합	계	5.0%, 15(15)	57.6%, 174(348)			32.1%, 97(291)	4.5%, 13(52)	1.0%, 3(15)	100%, 302(721)	302(735)

各群別 實行率은 病院職員群 73.8%, 아파—트群 71.1%, 환자보호자群 59.3%, 農村群 45.9%의 順位로, 特히 農村群에서 全然 實行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41.3%의 高率로 注目케하고, 朴外⁹⁾의 37.0%과 高¹⁰⁾의 30.0%보다도 높은率을 보인다. 敎育程度가 낮은 農村群은 實行率이 낮다.

避妊方法 知得數 및 其 知得內容 :

全調査對象者에서 全然히 모르는 사람은 9.0%이며, 이것도 93.0%가 未婚에서 보였고, 한가지라도 以上 알고있는 사람은 全調査者에 對해 91.0%로 1976년의 家族計劃 및 出產力實態調査結果의 知悉率 93.6%보다는 낮은 率을 보이나, 婦人 99.0%는 거의 同率을 보이며, 金知得者의 1人當 知得數는 4.9이다. (表 5)

知得內容에서는 合計에서 1位 루—프, 2位 콘돔, 3位 精管切除術, 月經周期利用, 4位 卵管結紮手術, 經口避妊藥, 5位 月經調節, 6位 腔外射精, 7位 탐폰의 順位이나, 鄭崔⁸⁾의 1·3位는 같으나, 2位の 經口避妊藥이 6位로 떨어져 있는것이 다르다.

特徵적인 것은 루—프에서 農村群 31.5%로 他群에 비해 比較的 높은率을 보여주고 있다.

未婚에서 避妊方法을 76.1%로 婦人보다 적게 알고, 全然 모른다는것이 相當히 占하고 있는것은 注目할 일이다.

現在子女數 및 性別과 理想子女數 및 性別 :

平均現子女數와 理想子女數 共히 2.4名 同率을 보이고있어, 더많은 對象者의 年齡의 差異에서는 이率이 若干 다를 것으로보나, 서로 接近하고 있는 것을 알수가 있고, 尹,李¹¹⁾의 理想子女數 3.9名, 家族計劃研究院調査(1976)¹²⁾의 理想子女數 2.8名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理想子女數의 比率은 2名이 57.6%, 3名이 32.1%로 趙¹³⁾의 2名 44.0%보다는 高率인데 비해 4名 22.0% 5名以上 26.0%보다는 顯著한 低率을 보였다. (表 6).

現存 3名以內 子女數를 가지고 理想子女數 3名以上을 願하는 婦人은 36.2% (88名), 其中 3名을 理想子女數로하는 婦人이 75.0% (66名)이며, 現存 4名以上

子女數를 가지고 理想子女數 3名以上을 願하는 婦人은 62.0% (31名), 其中 3名을 理想子女數로 願하는 婦人이 90.3% (28名)로, 現在 적게 子女數를 가지는 사람보다도 現在 많은 子女數를 가진사람이 理想子女數가 높고, 其中 3名을 願하는 婦人이 많은 것을 알수가 있다
避妊選擇時期 :

現在 避妊하는 婦人 182名에서 두번째 分娩后가 32.9%, 세번째 分娩后 28.9%, 첫번째 分娩后 14.8%, 結婚始初부터 14.2%의 順位와 세번째 分娩后以後 38.5%로 實族計劃研究院 研究調査¹⁴⁾의 첫번째 分娩后 18.0%, 두번째 分娩后 24.1%, 세번째 分娩后 52.6%와, 日本資料(1975)¹⁵⁾의 같은 順序에서 35.0%, 28.0%, 17.6%와 對照하면 세번째 分娩后 以後率은 家族計劃研究院調査보다 顯著히 純化되고, 日本資料에서는 첫번째 分娩后가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調査에서는 두번째 分娩后가 제일 率이 높고 네번째는 以上이 顯著히 줄어지는대신 두번째 세번째 分娩后가 增加되어 가고 있다. (表 7)

表 7. 피임선택 "시기 () : %

분단. 기 대상	처음부터	1	2	3	4	5	6	합계
아파 — 트	10	9	17	27	4	2		69
농 촌	8	4	18	13	4	3		50
병원 직원	7	5	13	3	3			31
환자보호자	1	9	11	9			1	32
합 계	(14.2) 26	(14.8) 27	(32.9) 59	(28.9) 52	12	5	1	(100) 182
		112(61.5)			70(38.5)			(100)

避妊實施狀況 :

避妊을 實施하는 總婦人 182名中 婦人 70.4%, 男便 29.6%의 實施率로 男便들보다 婦人便이 約 2.4배나된다. 特히 農村 群에서 婦人實施率이 90.2%로 아파—트群의 55.8%보다 強率로 他群에 비해 特徵을 나타내

表 8. 피임실시 상황

() : %

		아파—트	농 촌	병원직원	환자보호자	합 계	비 고
실시하는 사람		69	50	31	32	182	
하 는 쪽	부 인	(55.8) 43	(90.2) 46	22	27	(70.4) 138	부부 함께 실시 포함
	남 편	34	5	12	7	(29.6) 58	
	계	(100) 77	(100) 51	34	34	(100) 196	
적극적으로 사람	부 인	60	40	26	25	(65.4) 151	부부 함께 원함이 포함
	남 편	33	21	11	13	(33.8) 78	
	시어머니	1			1	2	
계		94	61	37	39	(100) 231	
실시 안하는 사람		28	58	11	22	(100) 119	
자녀를 더 원함	남 아	2	(61.5) 24	4	7	(56.9) 37	
	여 아	2	5			7	
	구별 없이	3	10	3	5	21	
계		7	(60.0) 39	7	12	(54.1) 65	
원하지 않는 그 이 유	자연 불임	8	3	1	3	15	신혼, 임신 관계
	폐 경	5	3		1	9	
	건강 문제	6	4	2	1	13	
	피임 부작용	1	6	1	2	(8.3) 10	
	기 타	1	3		3	7	
계		21	19	4	10	54	

고 있다.

避妊을 積極的으로 願하는 便은 婦人 65.4%, 男便 33.8%로 婦人便이 男便들보다 約 2倍가 되며 實施比率에 가깝고, 各群에서는 特異한 것이 없다. (表 8)

避妊을 實施않은 總婦人 120中, 子女를 더 願하므로 避妊을 實施않은 婦人이 54.1%로, 이中 男兒를 더 願하므로가 56.9%가 된다. 그리고, 避妊을 實施않은 總婦人에 對해 各群中, 特히 農村群이 60.0%이나 차지하고, 農村群에서 避妊을 實施않은 婦人中에서 男兒를 더 願해서가 61.5%가 된다. 이것은 農村群에서 他群보다 男兒選好의 意識이 強한것을 보여준다.

避妊의 副作用으로 避妊을 實施않은 婦人이 8.3%로 張鄭³²⁾의 29.1%보다 매우 低率이나, 이것은 避妊을 實施하는 婦人들로부터는 이 對象에서 除外시켰기때문, 影響이 있으리라 본다.

男兒選好 :

全調査者를 통해 男兒를 꼭 바라는 것이 72.5%의 高率로 이것은 沈¹⁶⁾의 有配偶可妊娠婦 62.2%보다 높으나, 이

는 本調査에서는 未婚職場女性까지 對象을 시켰기때문 其影響이 있으리라 본다. 男兒選好하는 理由中, 合計에서 1位 “代이음” 38.0%, 2位 “믿음지하다” 26.0%은 他理由보다 強勢를 보이며, 이것은 李等¹⁷⁾의 1位 “家系繼承”, 2位 “安樂과도움” 3位 “老後依持”의 順位中 1位 家繼는 같은 順位이나, 2·3位는 本調査에서는 4·5位로 떨어져 있다. (表 9)

男兒分婣時期는 첫아이에서 바라는 것이 41.3%로 제일 많으며, 分婣時期에 關係없이 男兒만 分婣하면 足한것이 21.9%이다.

男兒를 選好하는 便은 婦人群에서 男便 43.3%, 婦人 32.6%, 시어머니 19.2%, 시아버지 15.9%로 車外¹⁸⁾의 男便보다 婦人들에게 더 많은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男兒選好의 理由中, 家系繼承하는 것이 1位로 優位를 차지하듯이 男便들에게서 強한 意識을 갖기때문이 아닌가 쉽다.

男兒를 꼭 바라는 것이 未婚에서 60.1%, 婦人에서 79.1%이며 男兒分婣時期에서도 첫아이에서 바라는 것!

表 9. 남아선호도 및 그 이유

() : %

남 아 선 호	미 혼 기				혼				합 계
	은	행	아과	트 농	촌	병원직원	환자보호자	계	
선호구별	꼭 바랍니다	98 (60.1)	66	102	27	44	239 (79.1)	337 (72.5)	
	반드시 바라지 않음	65	31	7	15	10	63	198	
	계	163 (100)	97	109	42	54	302 (100)	465 (102)	
선호대하 이유	경제력 있음	5	3	6	2	11	16		
	집안의 기둥임	17	17	26	6	15	64	80	
	노후 의지가 될	1	5	15	5	25	26		
	이름이 좋음	38 (33.0)	50 (45.0)	63 (19.1)	9 (30.0)	30 (36.1)	152 (39.5)	190 (38.0)	
	동력 있음	2		2		2	4		
	믿음직함	27 (23.5)	3 (27.9)	41 (25.5)	13 (43.3)	18 (21.7)	103 (26.8)	130 (26.0)	
	안락과 도움	22	5	2	1	7	15	37	
	딸은 비용이 많이 듦	1		3		2	5	6	
	딸은 출가 의인임	2		3		1	4	8	
	계	115	111 (100)	151 (100)	30 (100)	83 (100)	385 (100)	506 (100)	
분담시기	아이에 바람	55 (33.3)	31	64	13	29	137 (45.3)	192 (41.0)	
	관계없이 바람	43	35	38	41	15	102	145 (21.9)	
	꼭 바라지는 않음	65	31	7	15	10	63	128	
	계	163 (100)	97	109	42	54	302 (100)	465 (100)	
원하는 사람	인		16	27	12	24	119 (22.6)	20	
	편		20	43	22	33	153 (43.3)		
	아버지		23	20	8	7	58 (15.9)		
	어머니		30	20	14	6	70 (19.2)		
	계		112	127	56	70	365 (100)		

表 10. 인공유산 및 그 이유

대 상	0	1	2	3	4	5→	합계	이 유					합 계
								아이가 많아서	불건강	터울이 잡아서	가족계획 패	자기자신 시간잡임	
아과트	54	15	11	6	5	6	97	10	13	10	10	43	
농촌	23	28	10	7	1	1	70	9	11	10	15	46	
병원직원	22	7	8	4		1	42	6	9	3	2	20	
환자보호자	27	13	6	4	2	2	54	10	8	6	1	27	
계	126	63	35	21	8	10	263	35	41	26	28	136	
합계	137(278)		52.1%			100%	25.7%	28.1%	20.9%			100%	

() : 실 인공유산수.

이 未婚에서 33.3%, 婦人에서 45.3%,로, 모두 婦人에게서 未婚보다 높았고, 未婚에게서도 相當히 높은 率을 보이고 있다.

人工流産 및 그 理由 :

妊娠經驗이 있는 婦人 263名에 대해 人工流産經驗이 있는 婦人이 52.1%로 洪李¹⁹⁾의 68%보다 낮은 率을 보

이고, 1人當 2.0回꼴이다.

人工流産理由는 母體의 不健康때문애가 28.1%로 으뜸이고, 터울이 잡아서가 20.9%로 다음을 찾아하고 있어 뒤 두가지 理由는, 같은 立場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46.6%의 高率이 된다. 人工流産이 子女調節의 方法途로 利用되었음을 알수가 있

고, 이로 인한 母의 健康에 障害을 招來하는 것이다(表 10)

Ⅲ. 結 論

全調査婦人을 통해 이때까지 한번도 避妊을 해본일이 없는 사람이 25.8%이란 것과, 特別 農村婦人에서 41.3%의 高率을 보였고, 避妊方法知得에서 未婚女性(高卒)의 23.9%가 避妊方法中の 한가지라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注目을 끌며, 避妊知識의 知得經路는 全對象群을 통해 메스컴이 45.8%로 으뜸을 차지하고, 其中에서도 T·V가 50.0%로 羊을 占하며, 各群모두 이順位에 準하나, 他經路에서 特徴적인 것은, 教育程度가 낮은 農村婦人은 教育程度가 높은 都市婦人(아파—트住民)에 비해 農村婦人은 保健所職員을 통해서(2位) 33.3% 避妊知識을 知得하고 있는데 都市아파—트婦人은 學校를 통해(大卒 63.9%), 知得하는것이 他經路에 비해 두드러진데, 未婚女性(高卒 96.3%)에서는 學校를 통해서가 2位 16.2%, 雜誌를 통해서가 3位 13.1%이다.

子女教育에 對한 熱誠과 執着이 매우 強하여 金調査者를 통해 數를 制限하여 子女를 잘 教育시키는데 理由가 있는 女性이 1位 38.8%, 經濟的困難을 避하기 爲해서가 2位 13.1%이었으나, 農村婦人에서만 反對로 經濟的困難을 避하기 爲해서가 1位 33.8%, 數를 制限하여 子女를 잘 教育시키기 爲해서는 2位 18.9%로 相異한것이 他群에 비해 特徴的이다.

理想子女數에서 2名이 57.6%, 其中 男 1 女 1이 92.4%, 3名이 32.1%, 其中 男 2, 女 1이 97.7%의 絕對數와 性別을 차지하며 避妊選擇時期도 따라서 두번째 分娩后가 32.5%, 세번째 分娩后가 38.5%로 많고 現在子女數와 理想子女數가 함께 2.4名으로 同一로 本調査에서는 나타났으나, 이것은 더 많은 對象數를 調査했을 때의 各年齡別差異를 고려 한다면 多少 本調査와 相異한것이 있을것으로 보나, 서로 接近하고 있음은 알수가 있다.

全調査者를 통해 男兒가 꼭 있어야한다는 女性이 72.5%, 避妊을 안하는 婦人中 子女를 더바라는데 其中 男兒를 바라는 婦人이 56.9%이고 其中 農村婦人이 61.5%로 나타나고, “代이음”과 “믿음직하다”는 것으로 其理由가 되는것이 全調査者를 통해 64.0%로, 特別 其中 教育程度가 높은 아파—트群 72.9%, 병원직원 73.3%로 他群에 비해 높으며, 男兒選女子便이 全婦人을 통해 婦人便의 32.6%보다 男便便 43.3%가 높는데 비해 避妊을 實施하는 便은 婦人便이 70.4%로 男便便보다 높았다. 이로 미루어 避妊에있어 男便들의 消極性, 婦人들의 受動的인 觀念과 男便들에게 더 強

한 男兒選好의 傾向이 있는것은 아직 우리社會內에 家系的 代이음과 집안의 中心은 男子란 家夫長的 意識이 남아 있음이라 본다.

妊娠經驗이 있는婦人中, 人工流產經驗婦人이 52.1%이고, 其中 아이가 많아서와 터울이 잦아서의 理由가 46.6%로 母體의 健康에 害를 招來하는 人工流產이 産兒調節의 한方法으로 利用됨을 알수가 있다.

參 考 文 獻

1. 保健社會部：韓國家族計劃圖報, 18 : 26, 1975.
2. 中央日報：農村의 文化用品이 늘고있다. 農水産部 全國保有現況調査 (1), 1979.3.1.
3. 張任源, 鄭奎徹：一部都市 零細地域의 保健實態, 豫防醫學誌, p.11, Vol.10, No.1, Oct. 1977.
4. 荻野博：避妊知識知得의 經路, 家族計劃(受胎調節) 産婦人科の世界, p.40(892) 20卷 9號 1968.
5. 李性寬外 8人：農村에 있어서의 母子保健實態現況 慶北醫大雜誌, 13, 1972.
6. 日本毎日新聞：避妊을 實行におる理由, 1967.
7. 崔仁鉉：人口 및 家族計劃事業에 關한 研究活動概要 및 이에 對한 小考, 韓國家族計劃事業을 위한 社會科學分野研究의 接近開發세미나, p.29, 1980.
8. 鄭惠瓊, 崔三燮：一部 農村地域 主婦의 保健醫療에 對한 知識：態度 및 實踐度에 關한 研究, p.107, Vol.12, No.1, Oct. 1979.
9. Park, Byung Tae,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IFP, 1979.
10. 高甲錫外：1978年度 全國家族計劃 實踐率調査, 未發刊, 家族計劃研究院
11. 尹能基, 李性寬：農村婦人의 子女數에 對한 態度에 關한 研究. 慶北醫大雜誌 Vol.16, No.1, p.155~183, 1975.
12. 家族計劃研究院調査：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 調査, 醫協新聞, p.2, 1979.3.12
13. 趙宰衍：理想子女數와 可妊婦들의 特性에 關하여, 豫防醫學會誌 p.191, Vol.7, No.1, Oct. 1974.
14. 家族計劃研究院：年度別出産力 및 家族計劃 實態 調査.
15. Summary of the 13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he Population Problem Research Council Tokyo, Japan, 1975. August.
16. 沈達燮：家族計劃事業의 現況과 問題點, 한국가족 계획사업을 위한 社會과학 분야연구의 접근개발세미나, p.18, 1980.

17. 李星珍, 李勳求: 同上, p. 67, 1980.

18. 車載浩, 鄭範謨, 李星珍: 韓國의 男兒尊重思想, 社會, 文化, 心理學的分析, 서울한국행정과학연구소 1975.

19. 洪性鳳, 李任田: 人工妊娠中絶 및 不妊施術과 關聯된 社會, 心理分野의 研究課題, 韓國家族計劃事業을 위한 社會科學分野研究의 接近開發세미나, p. 153, 1980.

